



연중 제17주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얼마나? 어디서!

코로나 시대.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로 온 세상이 멈춘 듯합니다. 경제적 활동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람이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고, 단절된 시간 속에 사랑의 결핍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채우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외적 내적으로 결핍의 거리에 내던져진 듯한 처량한 우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야 하지만 채워지지 않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군중들을 예수님은 분명 애처로운 마음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메마른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성체성사의 예표로 드러낼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필립보에게 묻습니다.

필립보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디서’ 살 수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임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되어짐을 잊어버리고 산술적인 접근에 멈춰 섭니다. 또한 베드로는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며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숫자적 개념. 있음과 없음, 많고 적음으로 인간을 배불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적 내적 배고픔을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영과 육을 배불리시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약하고 무가치해 보인다 하여도, 주님 사랑의 말씀에 힘입어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놓은 작은 원의를 통해 사랑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보다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지? 바로 내 작은 사랑의 봉헌(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이 메말라 있는 우리를 풍요롭게 배불리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하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한주인 마태오 신부 | 고성본당 주임



제 1 독 서 2열왕 4,42-44
화 답 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서 에페 4,1-6
복 음 요한 6,1-15

주일 진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벗인 노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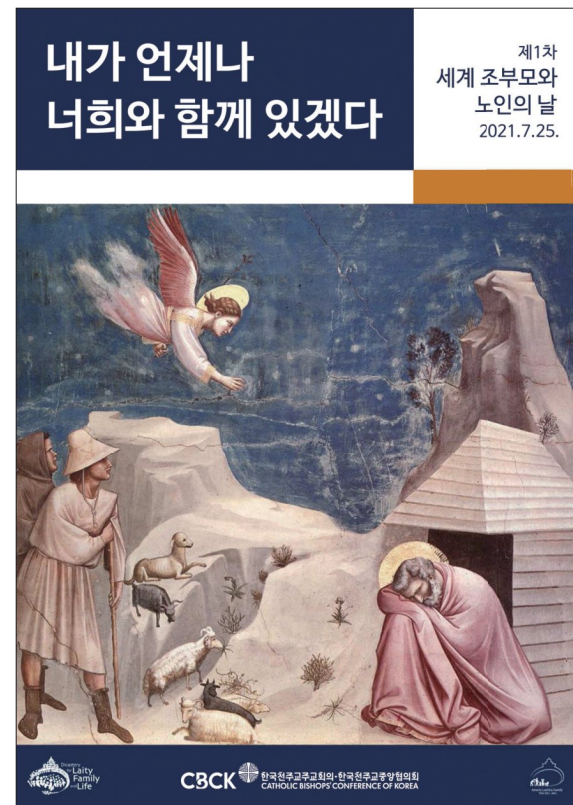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처럼 노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시며,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노인이,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이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손주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오랜 벗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손주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일에 나이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활동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모든 형제들』, 77항)하기 위해 세 가지 기둥 - 꿈과 기억과 기도 - 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꿈, 평화라는 우리의 꿈,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나이 든 모든 이의 참된 사명입니다. 삶의 토대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쩌면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위로의 말을 모든 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전례 자료

- 7월 25일의 주일 미사 가운데 하나를 본당이나 공동체의 조부모와 노인들과 함께 이날을 기념하며 봉헌할 수 있다.
- 노인들의 미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은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
- 미사 거행 중에 본당이나 공동체의 젊은이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를 낭독할 수 있다.
- 7월 25일 당일이나 그 전후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례를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장소에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여, 미사 거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이날 미사의 헌금은 공동체의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홀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고독의 영적 의미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홀로 있어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도 소외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간접적인 소통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이들, 혼자 식사하는 이들, 그리고 부양가족 없이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고독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도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성당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홀로 조용히 있으면 뭔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늘 TV를 켜 둔답니다.”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홀로 고요히 머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피정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변화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고독에 지배되기보다는 내적인 고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하느님과 깊은 영적 유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모든 외로움과 외적 고독, 소외감은 우리가 진정 내적 고독 속에서 홀로 있는 법과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고독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독孤獨이란 무엇인가? 문자적 의미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을 뜻하는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할 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나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된 내적 고독은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영적이다. 하느님과 더 깊은 영적 유대를 위해 그분 앞에 홀로 머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래서 고독은 ‘기도’이기도 하다. 이 고독을 위해 실제로 일상과 사람으로부터 물러나는 외적인 고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잡한 생각과 원의로부터 물러나 하느님께 집중하는 내적인 고독도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피정을 하며 하느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외적 고독과 내적 고독이 모두 중요함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은 고독 속에서 하느님과의 영적 유대가 형성되어가면 고독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기보다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영적 자유로움에 이르게 된다.

고독은 ‘자기-비움’을 통한 ‘자기-초월’의 길이기도 하다. 결국,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나를 넘어 ‘초월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진정 하느님 앞에 홀로 머무는 고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독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관상의 길이다.

고독은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다.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고독,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예수님의 그 고독,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신 예수님의 그 고독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고독과 만날 수 있다. 이 하느님의 고독과의 만남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고, 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독과도 만나게 된다.

결국 내적 고독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유대와 사랑의 일치치를 위한 자기 비움의 길이다. 자신을 하느님 앞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죄, 가난 등)을 하느님 앞에 말없이 내어 보여 드리는 것이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하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진정한 고독은 초자연성을 향한 갈망이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이다.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을 넘어 하느님의 영광의 깊은 친교와 일치 안에서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은 영적 충만의 시간인 것이다.

그리스도 페르소나를 입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2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분열된 나

임신하게 되었어요. 칼 헨릭은 의대생이었는데 친구에게 데려가 낙태를 시켰어요. 우리 둘이서 행복했고, 아이는 원치 않았어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기를 가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일들에 죄책감을 갖게 돼요. 내 판단이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생각이 변하는 거죠? 꼭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 같지요?

-영화, 페르소나. 1966.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와 ‘해야 하는 대로’ 사이에서 갈등하는 알마. 본능적 동물과 이성적 동물의 양면성은 어쩔 수 없는 인간 현실입니다.

엘리자벳, 감춘 게 뭐예요? 아들 사진이군요. 지난번에 찢어버린... 그 얘기 좀 해봐요, 엘리자벳. 안 할 거면 내가 할 게요. 파티가 있던 날 밤, 맞죠? 아침이 돼 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자벳은 여자로서, 또 배우로서 모든 걸 가졌어. 하지만 모성애가 부족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어넘겼는데... 얼마 후, 자신이 그 말을 곱씹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점점 걱정이 더해갔고 남편을 졸라서 임신을 하게 되죠.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자, 당신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책임져야 할 것들과, 무대를 떠나 가정에 매여 살 일이. 출산의 고통, 몸이 부풀어 오를 것도 겁났어요. 하지만 연기를 해야 했죠. 행복하고 젊은 미래의 엄마로서의 역을... 모두들 말했죠. ‘엘리자벳 정말 아름다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그러는 동안 당신은 여러 번 아이를 지우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너무 늦었다는 걸 안 후론 아기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아기가 사산되기를 바랐어요. 출산은 아주 길고 힘들었어요. 죽을 듯 고생하고 겨우 겹자 분만으로 아이를 꼬집어내야 했죠. 소리 지르며 우는 아기를 보고 혐오와 공포에 사로잡혀 속삭였죠. 빨리 죽어줄 수 없겠니? 하지만 아들은 살아남았고 밤낮으로 울어댔죠. 아기를 증오했어요. 당신은 무서웠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결국 아기는 친척과 유모에게 맡겨졌고, 당신은 무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통이 끝난 게 아니

었죠. 아들은 이상할 정도로 엄마의 사랑에 매달렸어요. 당신은 더 방어적이 되어 갔어요. 당신은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아들은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다정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들 모습을 역겨워했죠. 두꺼운 입술과 추한 몸, 눈물 글썽이며 매달리던 눈이 싫었어요.

자신의 실제 모습과 보여지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는 엘리자벳. 하느님을 닮은 인간과 원죄적 경향을 가진 인간의 양면성도 어쩔 수 없는 인간 현실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 이제는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안의 갈등이 타인과의 갈등으로 확장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들의 실제적 모습은 많은 경우 연기입니다.

연기하는 삶

일요일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좋은 음악이나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며 미사에 간다. 토카타가 연주되는 동안만 신념을 믿는(하느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숭고한 정신이 깃드는 순간에야말로 흥이 난다. 나의 묘기를 부려볼 기회가 온 것이다. 나는 기도대에 무릎 꿇고 동상처럼 되어버린다. 발가락 하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물론 다리가 저려서 죽겠지만 끝끝내 참는다. 원주 위를 기어올라 성수반에 오줌을 갈길까? 이러한 끔찍한 유혹을 물리쳤으니 조금 후에 어머니의 칭찬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받을 수가 있으리라. 내가 한 것은 거짓이었다.

-사르트르, 『말』



기회가 와서 연기를 한 번씩 해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어.’라는 걸 숨기고, 감정 표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연기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매력이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김아라. 위대한 클라스, Ep.6.

여기 연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삶 자체가 연기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연기입니다. 반면 북한에서부터 움츠려 살았던 김아라 씨의 경우는,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을 마음껏 펼치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예술의 가치

난 연기에 대해선 잘 몰라요. 영화랑 연극을 좋아하지만 거의 못 가요. 전 예술가들을 정말 존경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예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용서, 연민, 이런 대사들을 들으며 비웃는 엘리자벳, 급기야 라디오를 꺼버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알마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예술은,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상을 지향하도록 끌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예술이 도리어, 삶을 속이는 환상에 머물며, 삶을 정체시키고 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 종교에 대해선 잘 몰라요. 미사를 좋아하지만 자주 못 가요. 종교인들을 정말 존경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종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종교란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인간과 인간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또한 삶을 속이는 환상에 머물며, 삶을 정체, 퇴행시킬 수 있습니다.

일치된 지향점

내가 시험 쳤던 병원에 나이 든 간호사들 기숙사가 있었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해 온 사람들이요. 항상 유니폼을 입고 있고 작은 방에서들 살아요. 평생을 어떤 일에 바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뭔가에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것,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예요. (수녀님들 삶과 비슷하죠?) 난 그런 게 좋아요. 인간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알마의 볼을 엘리자벳이 쓰다듬습니다. 둘 다 내적 분열과 갈등을 겪지만, 알마도, 엘리자벳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일치된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르소나’는, 개체의, 모든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페르소나는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 또는 타협을 통한 ‘보여지는 모습’을 일컫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인간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각 위격도 페르소나라 합니다. 영화감독이나 작가가, 자신을 투영해 내는 배우나 작중 인물을 페르소나라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통괄하면, 페르소나는 한 마디로 ‘격(格)’입니다. 그 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동일한 위격, 인격일 수도 있고, 가면을 쓴 모습인 가격(假格, 가짜 격)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 ‘어쩔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의 성질은 각자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선적 모습에만 머물며 인적인 양 세상을 ‘속이는 가격’일 수도,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며, 인격을 ‘지향하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일지라도 ‘척하는’ 가격과 ‘지향하는’ 가격의 차이는 무한합니다. 척하는 것은 나락의 길이며, 지향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정도(程度)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입니다. 정도로는 세리보다 우월했을 바리사이지만, 방향으로서는 세리와 정반대였을 때, 예수께서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루카 18,14)’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제로서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충만하도록, 자신들의 인격을 지향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 교구/본당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숙박없이 2일간 진행합니다.

일시: 8월 14일(토) 10:00~20:00

8월 15일(주일) 09:00~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루카복음

대상: 선착순 20명 마감

참가비: 5만 원

신청: 8월 8일(주일)까지

문의: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후 안내)

47차 탈출기 연수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노트검사 및 연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관련 대응 지침에 따라 첫째날, 둘째날은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셋째날, 넷째날은 숙박하지 않고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8월 19일(목), 8월 20일(금)

19:40~22:00 비대면("ZOOM")

8월 21일(토) 10:00~21:00

마산가톨릭교육관

8월 22일(주일) 10:00~16:00

마산가톨릭교육관

강사: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대상: 창세기 연수 이수 및 탈출기 성경그룹 공부를 수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2961·9918(최수미 루피나),
010·6245·4967(임기호 보니파시오)

▶파견미사: 8월 22일(주일) 15:00

▶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7월 28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포콜라레Focolare 영남 온라인 마리아폴리

일시: 7월 30일(금)~8월 1일(주일) 총 6시간

주제: 행복의 열쇠, 내어주는 사랑

접수: 7월 27일(화)까지

신청: www.focolare.or.kr

문의: 포콜라레 010·7670·3111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미사 시간 추가 및 일정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6:00/ 명서동성당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기 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성소자 모집

대상: 견진성사 받은 35세 미만의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49·4596, 010·2749·4596

메일: sicms1004@gmail.com

한국평협 제15회 우리 성가 공모

주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찬가, 한국 순교자 찬가

대상: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1인 1곡 출품
마감: 8월 20일(금) 17:00까지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8월 1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샴푸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일 립

접수: E-메일 clak0723@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www.clak.or.kr 참조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8월 23일(월)~2022년 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예수회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9월 개강)

▶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가톨릭 신앙과 영성,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영신수련 정기강좌, 성경대학, 구약성경 아카데미

·영적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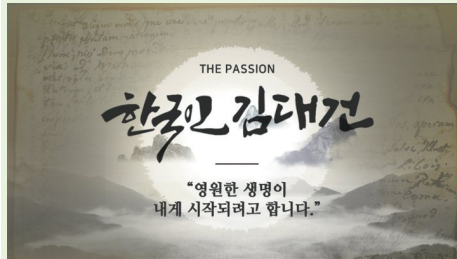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다큐멘터리 '한국인 김대건'



‘한국인 김대건’은 2021년 탄생 200주년, 유네스코 기념 인물 제정을 맞이하여, 수원교구 미리내성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국인 김대건(The Passion)」이다.

▶ 다큐멘터리는 수원교구 유튜브 채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272)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주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신간소개

축복 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그동안 사용하던 『축복 예식』 시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한국어 『축복 예식』 공식판을 발행합니다(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 Prot. N. 653/14).

한국 교회는 202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 이를 사용합니다(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 이 예식서는 모두 5부, 4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주교회의가 특별히 마련하고 『축복 예식』과 함께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태중의 아기 축복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 규격: 크라운판(175×248mm)
- 면수: 672면

축복 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야곱의 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다 (창세기 45-50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는 파라오의 궁궐에 와 있습니다. 히소스 시대에 하부 이집트의 수도는 나일강 델타 지역에 위치한 아바리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바리스는 현재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은 파라오의 궁궐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레와 여행 양식, 예복 한 벌씩을 주었고, 벤야민에게는 은전 300세켈과 예복 다섯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집트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여행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아들을 보러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헤브론을 떠나 브에르 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나타나시어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실 것이며, 다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은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족들에게 파라오를 알현할 준비를 시킵니다. 파라오가 생업에 대해 물으면 가축을 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농업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쟁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파라오는 야곱 일족에게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지방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에 정착하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소유지를 떼어 주고, 필요한 양식도 대어 주었습니다.

야곱 일족은 고센 땅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해 온 야곱은 이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야곱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나쎄가 이 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고,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른손은 에프라임 위에, 왼손은 므나쎄 위에 얹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산 막펠라의 동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묘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레베카,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은 40일에 걸쳐서 미이라로 방부처리됩니다.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칠십 일 동안 곡을 한 후, 요셉은 파라오에게 야곱의 장사를 지낼 수 있는 허락을 얻어 그의 시신을 헤브론에 있는 막펠라 동굴에 매장하였습니다. 그후 요셉도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의 시신은 방부처리되어 관에 모셔졌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자신의 유골도 가져갈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후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탈출 13,19). 요셉의 무덤은 스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창세기의 여정은 끝납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그의 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탈출기에서 보도될 사건의 배경을 이룹니다. 우리의 다음 순례 여정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펼쳐집니다.